

회장선거와관련된 규정

1. 정관- 제13조(회장의 선출)

- ①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장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되 총회출석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독립적으로 회장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총 투표인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② 전항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다수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회장의 입후보자격은 입후보 등록일 현재 본 협회 정회원의 자격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 ④ 회장선거 일정은 정기총회 개최일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선거규정”에 의한다.

2. 회장선거규정

제14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표를 하는 때에는 지정된 기표용구만을 사용하여 “○”표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투표)- 투표자는 선관위원회에 주민등록증 또는 선원수첩 등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다음 자기자리로 되돌아간다.

제18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둘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란 이외에 기표한 것
6. ○표 이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한 것
8. 지정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관위에서 비치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두 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인주로 오소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③ 기타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준용)-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정관과 이 규정에 없는 사항은 선관위의 결의에 따른다.

(사)한국해기사협회 회장선거 홍보물

기호	회장 입후보자	
2	문삼성 文三星 [1966년 05월 05일 생]	

학력

- 89. 02.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41기) 졸업

승무경력(총 3년 4월 16일)

- 87. 02. ~ 87. 09. 실습기관사 한국해양대학
- 89. 03. ~ 90. 03. 2~3등기관사 교
- 90. 10. ~ 92. 01. 2등기관사 동진상운(주)
- 92. 07. ~ 92. 12. 2등기관사 한진해운
- 범양상선

육상근무경력

- 93. 11. ~ 01. 08. 세웅그룹(선박, 산업, 리조트, 건설) 경영기획실 팀장
- 06. 07. ~ 09. 07. 김포자연개발(골프장 시행/시공) 대표이사
- 12. 09. ~ 13. 02. 이재균 국회의원 기획실장
- 14. 05. ~ 17. 05.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사무총장
- 17. 06. ~ 18. 06. (사)한국해기사협회 기획총무 상무
- 22. 02. ~ 현재 주식회사 씨니마린 상무이사

기타주요경력

- 한국해양대학교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88.03. ~ 88.09.)
- 前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17.06. ~ 19.12.)
- 現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21.08. ~ 현재)
- 現 한국해양대학교 해군 ROTC 총동문회 부회장 (13.08. ~ 현재)
- 한국해양대학교 총동창회 공로패 수상 (18.01.)
- 부산해양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패 수상 (16.02.)
- 부산해사고등학교 총동창회 감사패 수상 (16.12.)

출마 소견서

2023년 세계경제는 2022년도보다 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중국-대만 갈등이 전 세계경제를 위축시키고 있고, 한국도 금융시장 불안과 3고현상이 확산되어 시장이 얼어붙고 있으며, 이는 IMF시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해운업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장래의 발판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한국 해기사(주니어사관)의 승전기피 현상이 지속되어 상급 해기사의 부족 및 해기단절이 되어 직급 간 역삼각형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해기단절을 막고 해기전승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한국해기사협회가 노·사·정·민·학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상기인은 한국해양대학교 재학 중 3학년 한바다 실습선 작전관 간부와 4학년 때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으로서 학우들의 커리큘럼 개정, 권익보호, 복지·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학교 당국과 많은 협의를 함으로써 상생과 협업을 몸소 체험했고, 학우들을 대변하면서 리더십을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타 대학 총학생회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소통과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졸업/입관 후 3년 5개월 원양 승선을 하면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 5대양 6대주의 넓은 세상을 다니면서 육상 사회생활의 근간인 인내와 세계 각국의 선진화된 모습을 보면서 꾸준한 자기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해운회사 자문 재직 시 한국해양대학교 원로 선배님과 해수부 고위직 추천으로 이재균 국회의원(영도구)을 모시면서 입법기관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총동창회 사무총장으로서 헌신과 봉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해기사협회 기획·총무 상무로 재직하면서 협회 업무의 실무를 익히게 되었고, 협회의 문제점과 개선점 및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기득권으로 당선된 자리가 아니며, 확고한 협회 개혁을 추진시키고 낮은 관행을 타파, 완성하여 젊은 해기사들이 외면하는 협회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협회, 청장년층이 아우르는 화합협회 구성과 10년, 20년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의 한국해기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한국해기사협회에서 기획하고 실행단계까지 만든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를 계승하여 노·사·정·민·학의 지금도 교류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과 이재균국회의원 보좌시 인연을 맺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님, 대표적 NGO 단체인 부산항발전협의회, 총동창회 사무총장 재직 시 교류했던 각 교육기관 총동창회 등 폭넓은 인맥 및 재물을 오물처럼 생각하면서 사람을 중요시 여겨 이루어낸 여러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열정과 땀을 부어서 해기전승을 위하여 기쁨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의 자리는 나이순서도 아니고 빠른 학번이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한국해기사협회 실무경험이 있는 제가 적임자라고 감히 판단되고, 그런 한국해기사협회장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은 무엇을 할 것이냐에 앞서 어떤 사람이냐가 먼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한국해기사협회도 회원도 곧장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한국해기사협회는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폭넓은 네트워크와 강력한 추진력!

누구보다도 세부적 실행계획(Action Plan)이 준비된 후보!

역량 또한 갖춘 준비된 후보 '문 삼 성'을 선택하여,

더 크게 발전, 완성할 수 있도록 한국해기사협회 회장을 맡겨 주십시오.

임원단 및 선출직 대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한국해기사협회를 살리고 더 크게 발전 완성 할 수 있는
문삼성의 핵심 공약! 목소리 나는 일꾼 문삼 성 이한다!

1. 소통: 홈페이지, SNS, 유튜브 방송국 개설
2. 세력화: 협회 어플과 노·사·민·학 결집을 통한 정치·사회적 위상 제고와 선원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매력화 사업)
3. 대표성: 노·사·정·민·학을 선도하여 정책적 대표성 확보 및 정치인 미래해기사 인재풀 양성 아카데미 설치
4. 미래해기육성협의회 운영 활성화 및 해기단절에서 해기전승 추진을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 제안
5. 복지증진 확대: 협회 회원가입 대책 및 정회원 복지향상
 - 1) 협회對 선원복지고용센터 MOU를 통해 협회를 창구로 하여 해상선원 콘도, 자연휴양림, 마음치유센터, 전자도서관 이용
 - 2) 협회對 각종 병원, 음식점, 장례식장, 호텔, 후원회 집 MOU를 통해 해상·육상직원들 선 예약 및 할인제도 추진
 - 3) 현미경 예산 심사와 소중히 진단하여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및 후원을 받아 상조 상품 제공 및 콘도 구입後 육상, 해상 직원들 추가 혜택
 - 4) 협회 복합 문화공간 LOUNGE M 개선: 고급화 및 미팅룸 개설
6. 재정확보 전쟁 선포: 현재 회비수입 예산 총계 대비 43%
 - 1) 5항을 통한 회원확대와 회원수 증대 통한 수입 확대
 - 2) 재정확대를 위한 영업 회장
7. 승전기피 현상에 대한 가산점 및 법적 제도화 추진
8. 선원 근로소득세 전면 비과세 추진
9. 해기사 면허제도 체계 개선추진
10. 해기사의 원활한 해양수산연수원의 교육과정 개선
11. 마리너스빌딩 1층 교육센터설립
12. 한국해기사협회 회장 선거제도 개혁
13. 선원관련 법령 개정시 협회 고정 참여와 협회의 위상 확립
14. 선원 유급휴가 개선 및 법적 승선기간 확립
15. 해기사 및 대의원 간담회 정례화 추진

한국해기사협회 임원단과 선출직 대의원분 및 해기사 분들께!

한국해기사 협회를 바꿔봅시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